

국어의 부정의문문과 화행

장 경 기
영어영문학과

<要 約>

이 논문은 아래와 같은 문형과 화행의 관계들 밝히기 위해서 쓴 것이다.

(1) 영회는 갔지 않니?

이 문형의 특징은 일반적인 장형 부정문과는 달리 시제 표시가 '지' 앞에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장경기(1986)에서 이 문형을 통사적으로는 부정의문문이며, 화자의 전제라는 관점에서는 전용적 이차 전제용법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비문자적 간접화행(nonliteral indirect speech act)은 문자적인 직접화행(literal direct speech act)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언어 행위이다. (1)의 직접화행은 다른 일반 부정의문문과 마찬가지로 '질문'이다. 그러나 (1)의 간접화행은 '진술', '감탄'등 적절한 상황에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화행을 갖는다. 이 점은 비전제용법 및 일차전제용법의 부정의문문의 간접화행이 극히 제한적인 점과 비교할 때 이차전제용법의 부정의문문이 갖는 주목할 만한 화용론적 특징이다. 이는 또한 국어의 화용론적 특성을 증명하는 의미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Negative Questions and Speech Acts in Korean

Chang Kyung Key
Dept. of English Lang. & Lit.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questions and speech acts in Korean.

Our preceding paper(1986) has argued that Korean negative questions as well as English negative questions have un presuppositional usages, primary presuppositional usages, and secondary presuppositional usages, which are categorized on the basis of speaker's presuppositions. Unlike the other ones, the secondary presuppositional usage is a marked

case in that it asks for the hearer's confirmation about the speaker's affirmative presupposition through the syntactic negative ques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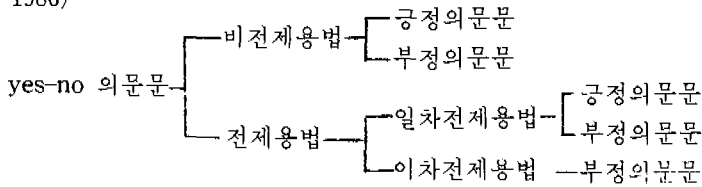
We suppose that this pragmatic nature is deeply related to the potentiality of speech acts of negative questions. The nonliteral indirect speech act is an act performed indirectly by way of performing the literal direct speech act. Our argument is that, unlike the other ones, the negative question with the secondary presuppositional usage is much more pragmatic and therefore has relatively varied types of indirect speech acts such as statement, exclamation, etc., depending on the appropriate circumstances. Last but not least, this is seemingly not language-specific but language-universal.

*이 논문은 1988년 5월 창원대학에서 열린 한국 영어영문학회 경남지부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 필자가 사용한 국어 자료의 문법성 및 용인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해준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1. 머리말

Karttunen(1973 : 169)에 의하면 전제(presupposition)에 대한 두가지의 다른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전제란 명제와 그 결과로서 정의되는 문장간의 의미적 관계라고 보는 의미론적 입장인데 이때는 화자와 청자 및 상황은 의미해석으로부터 배제되며 따라서 전제의 주체는 문장이다. 전제에 대한 또하나의 입장은 문장의 의미를 상황 안에서의 발화(utterance)의 의미로 보며 따라서 화자와 청자 및 상황이 의미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는 전제의 주체는 화자가 된다.

우리는 전제에 대한 후자의 입장에서 화자가 전제를 가지고 발화하느냐의 여부 및 어떤 전제를 가지고서 발화하느냐에 따라 yes-no 의문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 바 있다. (장경기, 1986)



화자가 어떤 사안의 사실 여부를 알고자하는 목적에서 발화하는 문장이 바로 yes-no의문문이라고 할때 화자가 발화 이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이 묻는 용법이 비전제용법이며 이때는 긍정의문문과 부정의문문의 사용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¹⁾ 한편 yes-no의문문을 발화하기전에 화자가 알고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용법은 전제용법이 된다. 전제용법은 전제내용의 긍·부정에 따라 일차전제용법과 이

1) 사실상 화자의 전제가 전무한 상황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실제 언어 환경에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전제 유·무를 구분하는 것은 상대적인 구분이며, 그 척도는 통사적 구조와 초분절요소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른 것이다.

차전제용법으로 구분하였다. 사실 우리의 이와같은 분류법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1) 영희는 갔지 않나?

위와 같은 문형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 두루 쓰이고 있음을 고려해 볼때 놀라울 정도로 미미하였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 이문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한 두 논문, 김동식(1981)과 장석진(1984)이 나온다. 김동식(1981)은 (1)을 '확인문'이라는 새로운 문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장석진(1984)은 (1)을 국어의 '전형적 부가의문문'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는 장경기(1986)에서 위 두 논문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1)을 통사적으로는 부정의문문이며 의미론 및 화용론적으로는 화자의 긍정 전제를 청자에게 확인하거나 동의 를 구하는 이차전제용법으로 분석하였고, 특히 (1)은 시제표지 '았'이 '지' 앞에 실현됨으로써 다른 부정의문문과는 달리 이차전제용법으로만 사용되는 전용적 이차전제용법임을 밝혔다.²⁾

우리는 (1)문형의 통사적 성격을 화자의 전제를 바탕으로하여 규명한 후로도 (1)의 용법을 좀 더 포괄적으로 기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절감해왔고 이를 위해서는 부정의문문의 화행(speech act)을 살펴보는 것이 첩경이라고 생각해왔다. 사실 (1)유형의 부정의문문은 '질문(question)이라는 화행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그밖에 여러가지의 화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쓰임새의 다양함이 그동안 (1)의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가 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따라서 우리가 (1)의 화행을 밝힌다는 것은 바로 (1)의 본질을 규명하는 핵심적 작업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2장에서는 먼저 (1)이 과연 부정의문문인가가 재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장이 아직 언어학계에서 일반화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1)의 화행만을 논한다면 모래위에 성을 쌓는 허사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부정의문문과 화행이론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전반부는 Austin(1962), Searle(1975), Grice(1975)의 관련부분을 논하여 화행(speech act), illocutionary act, implicature와의 관계를 정립한후 후반부에서는 이를 토대로하여 부정의문문의 화행, 특히 이차전제용법의 부정의문문의 화행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끝으로 4장에서는 부정의문문의 관용어법(convention)과 대화성(conversationality)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다.

2. 부정의문문 재론

앞장의 (1)문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그 구조와 의미의 상충에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지 아니하-'라는 일반적인 장형부정문의 통사구조를 가진 의문문이면서도 부정의 뜻은 전혀 없고 오히려 화자의 강한 긍정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1)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인 입장이 의미론적이냐 통사론적이냐에 따라 그 방향과 주장이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하겠는데 바로 김동식(1981)과 장석진(1984)이 의미론적 입장을 기본으로 하

2) 일차전제용법과 이차전제용법의 차이는 매우 분명하다. 일차전제용법은 긍정의문문이며 화자가 긍정의 전제를 가지고 있고 부정의문문이면 화자가 부정의 전제를 가지고 있으나 이차전제용법은 항상 부정의문문의 구조를 가지면서 긍정의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장경기(1986)에 있다.

고 있는데 반해 장경기(1986)는 통사론적 입장이 기본이 되고 있다.³⁾

어느 입장에 서있던지간에 (1)의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의 문장과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2) 영화는 가지 않았니?

상황이 배제된 가운데서 (1)이 갖는 일반적 의미는 화자가 영화는 갔는지 알고자하여 묻는 단순의문문의 의미이다.⁴⁾ 그러나 상황의존적인 관점에서 (2)를 다시 살펴보면 또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게된다. 즉, 화자가 영화는 갔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의미, 곧 (1)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각각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각 문장에 적절한 초본질요소(suprasegmentals)가 동반되어 그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단순화된 구별자질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내 보자.

(3) a. 영화는 가지 v 않았니? (↑)

b. 영화는 v 가지 않았니?

※V: 섬, 밑줄: 힘줄

(3a)는 바로 화자가 영화는 갔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요, (3b)는 화자가 영화는 갔음을 청자에게 확인하거나 동의의 구하는 질문이다. 그렇다면 (1)과, (3b)의 의미로서의 (2)의 관련성이야말로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우선 두 문장의 의미의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분명해졌으며 구조의 가시적 유사성 또한 우연한 일일 수는 없다. 결국 두 문장의 구조의 유사성은 (1)이 ‘지’ 앞에 시제표지가 오는데 비해 (1)은 선어말어미로서 ‘았’이 시제표지로 나타나는 차이점을 제외하면 바로 구조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제표지의 위치는 (1)문형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어왔다. 즉, (2)가 보여주듯이 일반적으로 국어의 시제표지는 선어말어미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1)에서 ‘지’ 앞에 시제표지가 오는 경우에도 이 ‘지’를 종결어미로 보고자하는 견해가 김동식(1981)과 장석진(1984)의 주장의 핵심이 되고있음은 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견해에 한 몫을 하고있는 또하나의 단서는 (1)이 “영화는 갔지?”라는 문형과 통사적·의미적으로 매우 닮은 모습이라는 점이다. 이와같은 (1)의 특성을 근거로하여 김동식(1981)과 장석진(1984)이 모두 (1)의 ‘지’를 종결어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들을 따르게 되면 결국 ‘지’ 다음에 오는 ‘않니’의 (1)에서 차지하는 언어학적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데, 과연 김동식(1981)에서는 ‘아니’를 소위 ‘부정 아닌 부정’ 혹은 ‘가부정’이라는 특이한 용어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또 장석진(1984)에서는 (1)에서 ‘영화는 갔지’까지는 전형적 부정의 문문의 본분에 해당하고 ‘않니’는 부정의문문의 꼬리(tag)라고 주장된다. 또한 시제표지가 선어말어미로 나타나는 (2)에 대해서는 김동식은 (3a)의 의미로 쓰일 때는 일반 부정의문문으로 보고, (3b)의 의미, 즉 (1)의 의미로 쓰일 때는 ‘확인문’으로 보았으며 장석진은 (2)가 (3a)의 의미로 쓰일 때는 일반 부정의문문으로 보고, (3b)의 의미로 쓰일 때는 화자의 태도가

3) 의미론적 입장이 강조되면 독립된 문형의 설정이 불가피해진다. 그만큼 문법의 부담이 가중된다. 통사론적 입장이 강조되면 기존의 문형이 설명해 주지 못하던 의미 부분을 그 구조안에서 설명해주어야 하는 부담이 따르나, 만일 이 점이 가능하다면 문법은 그만큼 간결해진다.

4) 우리가 문법성을 판단할때 상황을 배제한다고 흔히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배제된 의미해석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는 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의미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에 문법성에 대한 판단의 차이는 각 판단자가 상정하고 있는 상황의 차이에서 온다고 할 것이다.

비중립적인 부정의문문으로서 ‘본문 내용 확인 요청’이라는 화행을 갖는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두 논문의 견해 차이가 분명해지는 셈인데 김동식(1981)에서는 시제표지의 ‘지’ 앞의 실현은 그의 확인문의 선택조건인데 반해서 장석진(1984)에서는 의무조건이 되고 있다. 결국 김동식(1981)의 문제는 (2)와 같은 통사상 동일한 구문이 동시에 그의 ‘확인문’과 부정의문문이 된다는 점이며, 장석진(1984)의 문제는 그의 부정의문문인 (1)은 ‘본문 내용 동의 요청’이라는 화행을 갖고, (3b)의 의미로 쓰이는 (2)는 ‘동의 내용 확인 요청’이라는 화행을 갖는다면 이러한 차이가 부가의문문과 부정의문문의 차이에서 기인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 두 이론의 밑바탕에는 (1)의 ‘지’를 종결어미로 간주하는 공통된 입장이 깔려있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1)에서 ‘지’앞에 시제표지가 나타나는 현상을 자체 독립적인 것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일반 부정의문문과의 상호 관련성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주장속에서는 (1)의 ‘지’는 종결어미가 아니라 당연히 장형부정의문문의 ‘지’ 일뿐이다. 우리는 이 점을 보이기 위해서 국어경어법의 종결어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존경을 표시하고자 할때 그 표지는 문장의 끝, 즉 종결어미에 나타난다. 예문 (1)에 경어법이 표시된 한 문장을 검토해 보자.

(4) 영희는 갔지 않습니까?

화자는 어말에 ‘습니까’를 사용하여 위 문장에 보이지 않는 청자에게 경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문장과 (1)의 경어법의 다른 형태인 다음 문장과 비교해 보자.

(5) 누나는 가셨지 않니?

이 경우에는 어간 ‘가-’ 다음에 ‘시’가 와서 경어법이 실행되고 있으나 이 때는 화자가 청자에게 경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화자가 (5)의 주체인 누나에게 경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 앞의 경어법 표시로서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경어법의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1)의 ‘지’는 시제표지가 선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종결어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화자의 청자에 대한 경어법의 기능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어의 종결어미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1)의 ‘않니’도 문장의 시제 실현과 경어법의 표시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는 문장의 일부분으로 이해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이 문제의 핵심은 ‘지’와 관련된 것이 아님을 보임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어의 부정문은 장형부정문과 단형부정문으로 나누어지며 대부분의 경우에 이 두 표현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1)을 단형부정문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된다.

(6) 영희는 안 갔니?

이 (6)은 물론 (2)의 단형부정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있는 일은 (6)에 (1)의 의미, 즉 (3b)의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음과 같이 구별자질로 표시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7) a. 영희는 v 안 갔니? (↑)

b. 영희는 안 v 갔니?

(6)의 일반적인 의미는 바로 (7a)의 의미로서 화자의 전제가 없는 비전제용법과 화자가 부정 전제를 가진 일차전제용법으로 사용된다. 한편 (6)이 (7b)와 같은 초분절요소를 동반할 때는 (1)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⁵⁾ 이때는 화자가 긍정전제를 가지고 묻는 이차전제용법으로 쓰이는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화자가 영희는 갔음을 청자에게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1)의 용법과 동일한 용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6)에는 ‘지’도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지’ 앞의 시제 실현 문제로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1)과 동일한 용법으로 쓰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있는 시사를 해준다고 하겠다. 즉, 김동식(1981)은 ‘지’ 앞의 시제 실현을 근거로 부정의문문이 아닌 ‘확인문’이라는 문형을 창조했고, 장석진(1984)은 같은 근거로 국어의 ‘전형적인 부가의문문’으로 분석한 바 있는데 이들의 주장이 국어의 단형부정문을 설명할 수 없고 또 실제로 그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어의 장형부정문과 단형부정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대안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다만 여기서 남은 한가지 문제는 (1)과 같은 ‘지’ 앞의 시제 실현이 부정의문문의 틀 안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으며, 또 부정의문문의 형식을 빌어 화자가 강한 긍정을 표현하는 용법이 과연 국어에만 있는 (language-specific) 현상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영어의 부정의문문의 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영어에서도 부정의문문의 형식을 빌어 강한 긍정의 의미로 사용하는 용법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Jespersen(1933 : 304)은 이미 ‘Isn’t that nice?’가 ‘That is very nice’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Cattell(1973 : 617-618)은 다음의 (8a)가 세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밝히고 있다.

- (8) a. Didn’t Aunt Eliza get married?
- b. Aunt Eliza didn’t get married.
- c. Aunt Eliza got married.

즉 위의 (8a)는 적어도 다음 세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 (9) a. (8b)에 대한 검증(verification)을 요구한다.
- b. (8b)에 대한 확인(confirmation)을 추구한다.
- c. (8c)가 참이라 믿고서 확인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8a)가 (9a), (9b)의 의미로 쓰일 때는 (8b)라는 부정서술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9c)의 의미일 때는 (8c)라는 긍정서술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우기 Hudson(1975 : 13-20)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는 yes-no 의문문을 ‘straight question’과 ‘exclamation’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이차전제용법으로 쓰이는 부정의문문이 바로 그의 exclamation이다. 이러한 용어의 선택도 자못 우리의 흥미를 끌고 있는데, 바로 화자의 강한 주장을 표현하는 감탄문(exclamative)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Hudson(1975 : 13-19)이 이루어놓은 눈부신 업

5)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좀더 상황의존적인 관점이 필요한 듯 하다. 예를 들어 엄마가 식사중에 탄짓하는 동생에게 이미 다 먹어가는데 형을 가리키며 “봐라, 형은 안(다) 먹었니?”라고 말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도 “형은 안(다) 먹었니?”민을 떼어서 보면 어쩐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적은 그의 exclamation으로 쓰이는 부정의문문의 통사적 특성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는 점이다. 이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exclamation의 'not'은 반드시 'n't'로 축약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n't'는 exclamation의 전용표지(arbitrary marker)이다.

- (10) a. Hasn't he gone a long way?
- b. Has he not gone a long way?

(10a)는 'not'의 축약형 'n't'가 쓰인 구문으로서 Hudson의 용어를 빌어 말하면 straight question과 exclamation의 두 용법을 가질 수 있으나 (10b)는 'not'이 축약되지 않은 표현으로서 exclamation으로 쓰일 수 없다. Hudson은 특히 exclamation의 'n't'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주장을 하고 있다. 즉, 'n't'는 원래 부정요소로 쓰였지만 점차 그 부정요소의 용법으로부터 독립하여 오늘날의 고유한 용법으로 쓰이는 어휘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exclamation에는 부정문에만 나타나는 어휘인 *any*, *yet* 등이 올 수 있다.

- (11) Won't she make someone(*anyone) a good wife?

위 문장에서 *anyone* 대신에 *someone*이 쓰이는 것은 (11)이 실제로는 부정의문문이 아니고 긍정의문문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다.

세째, exclamation의 억양은 하강 억양을 갖는다. 상승억양이 어떤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판단을 청자에게 맡기는데 비해 하강억양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화자가 확신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이차전제용법인 exclamation이 하강억양을 갖고 있음은 화자의 강한 긍정을 표현하는 용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udson의 exclamation은 우리가 앞서 정의한 이차전제용법 자체이다. 다만 Hudson이 기본적으로 문장 중심의 의미 기술을 하고있는데 비해 우리는 화자의 전제를 기본으로 한 화용론적 의미 기술을 하고 있다는 차이점은 있다.

이제 여기에서 국어 부정의문문의 이차전제용법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자.

첫째, 장형부정의문문의 '지' 앞에 시제가 실현되면 그 문장은 이차전제용법으로만 사용된다.

- (12) a. 영수가 때리지 않았나?
- b. 영수가 때렸지 않나?

시제가 '지' 앞에 오지 않은 (12a)는 화자의 전제 유무 및 긍·부정에 따라 비전제용법, 일차전제용법, 이차전제용법으로 쓰이지만, 시제가 '지' 앞에 온 (12b)는 이차전제용법만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지' 앞의 시제 실현은 바로 국어 부정의문문의 이차전제용법의 전용표지(arbitrary marker)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영어의 'n't'와 비교해보면 영어의 이차전제용법은 반드시 'n't'를 필요로 하지만 국어의 이차전제용법은 '지' 앞의 시제 실현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시제가 '지' 앞에 오면 그 문장은 반드시 이차전제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둘째, 이차전제용법의 문장은 '전혀', '아직' 등과 같은 부정요소와 함께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벌써', '이미' 등과 같은 긍정요소와 함께 쓰인다.

- (13) a. *영수는 아직 갔지 않니?
 b. 영수는 벌써 갔지 않니?
 c. 영수는 아직 가지 않았니?
 d. 영수는 벌써 가지 않았니?

‘지’ 앞에 시제표지가 온 (13a)와 (13b)는 이차전제용법의 문장이므로 (13a)처럼 ‘아직’이라는 부정요소가 오면 비문(ungrammatical)이 되지만 (13c)처럼 ‘아직’이 함께 쓰여도 바른 문장인 경우는 (13c)가 부정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일차전제용법으로 쓰일 때이며 (13d)처럼 ‘벌써’라는 긍정요소가 쓰여도 바른 문장인 경우는 (13d)가 이차전제용법으로 쓰일 때이다. 부정요소가 이차전제용법의 문장과 함께 쓰일 수 없다는 점은 영어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다.

세째, ‘아니’와 함께 국어 부정문을 만드는 대표적인 부정요소인 ‘못’이 쓰인 부정의문문은 결코 이차전제용법으로 쓰이지 못한다.

- (14) a. 영화는 못 갔니?
 b. 영화는 가지 못 했니?
 c. *영화는 갔지 못 하니?

단형부정문 (14a)나 장형부정문 (14b)는 이차전제용법으로 쓰이지 못하며 (14c)는 ‘지’ 앞에 시제표지가 왔으므로 이차전제용법으로 쓰여야 하지만 ‘못’과 상충되어 비문이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니’ 부정문과 이차전제용법과의 특수한 관계를 시사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네째, 이차전제용법의 경우 ‘지’와 ‘아니’이하의 축약이 가능하다.

- (15) a. 영수는 벌써 갔잖니? (갔지 않니?)
 b. 영수는 벌써 가잖았니? (가지 않았니?)
 c. 영수는 아직 가지 않았니? (*가잖았니?)

(15a), (15b)는 ‘벌써’가 함께 쓰인 이차전제용법으로서 축약이 가능한데 비해 (15c)는 ‘아직’이 쓰인 일차전제용법이므로 축약은 불가능하다. 이와같이 이차전제용법의 문장이 ‘지’와 ‘아니’이하의 축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그만큼 ‘지’와 ‘아니’이하의 밀접도가 강하다는 증거이며 따라서 ‘지’를 종결어미로 보고 ‘아니’이하를 ‘가부정’으로 본 김동식(1981)이나 꼬리(tag)로 본 장석진(1984)의 이론에 대한 반증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부정의문문의 형식을 빌어 화자의 긍정전제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이차전제용법이 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에도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점차 원래 부정문의 특성을 잃고 고유의 독자적인 통사상의 장치를 굳혀가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제 우리가 마련한 이차전제용법의 (1)문형이 여러 화용론적 상황에서 실제로 어떠한 의미로 쓰이는지에 대해 방향을 돌려보자.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1)은 단순히 의문문의 의미론만 쓰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 강한 자기 주장이 부정을 역으로 이용하여 포출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했다. 우리의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다음 장에서 Austin(1962), Searle(1975), Grice(1975)를 통해서 그 기초를 마련한 다음 이차전제용법의 문장의 화용론적 의미를 추적하기로 한다.

3. 화행이론과 부정의문문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화행(speech act)과 관련하여 특정 이론의 단순한 소개나 추종에 있지 않고 부정의문문의 이차전제용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의문문의 화용론적 의미를 밝혀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Austin(1962), Searle(1975), Grice(1975)의 관련 부분을 이 장의 전반부에서 살펴보고, 후반부에서 부정의문문의 화용론적 의미를 기술하고자 한다.

Austin(1962)이 나오기 이전에도 언어는 그 완벽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인간의 삶의 일부가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ustin(1962)이 마치 화용론의 출발점으로 이해되는 이유는 오랜 역사 속에서 언어학의 연구 대상이 되어왔던 추상적 언어(language in abstract)로부터 실제 사용언어(language in use)로 연구 대상이 전환 또는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그 이전의 언어학이 언어의 기술적 기능(descriptive function)만을 강조하고 언어학의 의미론적 연구는 이러한 문장의 진리치(truth value)를 밝히고 기술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Austin은 언어의 기능이 어떠한 사실의 기술을 주 목적으로 하는 발화문을 constative(서술발화문)로 부르고 또 언어의 기능이 기술이 주 목적이 아니고 어떠한 행위의 수행이 주 목적인 발화문을 performative(수행발화문)라고 불렀다. 물론 이 수행 발화문은 서술발화문과는 달리 그 진위(true or false)를 가릴 수 없고 그 행위의 성공적 수행 여부는 상황의 행복(happy or unhappy)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Austin(1962)의 모든 논의는 언어의 행위적 측면에 대한 명확한 기술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수정을 거듭하게 된다. 사실, 행위(act)라는 관점에서 볼때 모든 언어의 발화자체가 행위이다. 그런 면에서 처음에 constative를 performative로부터 분리하고 다시 수행동사(performative verb)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명시적 발화수행문(explicit performative)과 수행동사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일차 발화수행문(primary performative)으로 구분하는 등의 초기 단계의 작업의 어려움을 자인하게 된다. (Austin, 1962 : 94)

“It seemed that we were going to find it not always easy to distinguish performative utterances from constative, and it therefore seemed expedient to go farther back for a while to fundamentals—to consider from the ground up how many senses there are in which to say something is to do something, or in saying we do something, and even by saying something we do something.”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constative와 performative를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따라서 다시 어떤 발화에 따르는 행위를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locutionary act(발화행위)로서 모든 의미있는 발화문의 발화행위(an act of saying) 자체를 가리킨다. 또하나의 행위는 발화행위중에 화자가 수행하는 행위로서(an act performed in saying something) 이를 illocutionary act(발화중 수행행위)라 부른다. 마지막으로 또하나의 행위는 발화행위의 결과(an act performed by means of saying something)로서 화자가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이를 perlocutionary act(발화결과

행위)라 부른다.⁶⁾ Austin의 관심은 특히 illocutionary act(force)에 있으며 Austin(1962 : 100)에서 자기를 포함한 종전의 철학자들이 illocutionary act의 문제를 locutionary usage의 문제로 잘못 생각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단어의 의미는 화맥(context)에 의해서 설명되어져야 한다고 덧붙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다음 두가지 점을 주목하기로 한다. 첫째, Austin의 행위 이론은 화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발전시킨 것이다. 둘째, 주 관심사인 illocutionary act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가는 화자와 청자가 포함된 모든 상황의 적절조건(appropriate condition)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언어의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에 대해서 Searle(1975)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의 간접화행이론은 Austin(1962)의 발화중 수행행위(illocutionary act)를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서 간접화행을 “한 ‘발화중 수행행위’가 다른 ‘발화중 수행행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것”(one illocutionary act is performed indirectly by way of performing another)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Searle, 1975 : 60) 우리는 여기에서 간접화행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직접화행(direct speech act)을 도입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본다.” 이 직접화행을 Lyons(1977 : 785)는 발화하는데 사용되는 문장의 문법 구조에 의해서 직접 결정되는 ‘발화중 부수적 수행능력’(incidental illocutionary force)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간접화행에 대해서는 문장의 의미와 발화중 부수적 수행능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발화중 실제적 수행능력’(actual illocutionary force)이라고 불렀다. 한편, Searle(1975 : 61-62)은 ‘발화중 수행행위’(illocution)를 ‘발화중 일차수행행위’(primary illocutionary act)와 ‘발화중 이차수행행위’(secondary illocutionary act)로 구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발화중 일차수행행위’는 비문자적 의미(nonliteral meaning)이며 이 의미는 화자·청자간의 상호 배경정보(mutual background information), 화행이론(theory of speech acts), 일반 대화원리(general principles of conversation) 등이 작용하여 결정된다. 한편 ‘발화중 이차수행행위’는 문자적 의미(literal meaning)로부터 직접 수행되는 화행으로서 우리는 이를 직접화행이라 부르고 이는 Lyons의 incidental illocutionary force(발화중 부수적 수행능력)에 해당한다. 이와같은 용어의 사용을 아래처럼 도식화 해보자.

(16) 표

Austin	Searle	Lyons	우리의 분류	
illocutionary act	primary illocutionary act	actual illocutionary force	indirect speech act	nonliteral meaning
	secondary illocutionary act	incidental illocutionary force	direct speech act	literal meaning

6) locutionary act/illocutionary act/perlocutionary act에 대한 우리의 용어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 학술용어는 그 지칭하는 개념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해야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기존의 언표적 행위/언표내적행위/언표 효과적 행위(이정민, 배영남, 언어학사전, 1982)라는 모호한 용어를 도저히 사용할 수 없었다.

7) ‘직접화행’이라는 용어는 우리 자신의 것이다. 이는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문자적 의미에서 나오는 화행이다. 우리가 이 용어를 쓰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된다.

우리가 앞에서 Searle이 비문자적 의미에서 오는 화행을 primary illocutionary act라 부르는 것을 우리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한 이유는 우리의 직관으로 볼때 문자적 의미가 기본이며 따라서 일차적 화행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서이다. 그러나 언어를 행위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 대화 목적에 공헌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비문자적 간접화행일 경우가 대단히 많으며 이점이 Lyons의 actual illocutionary force의 'actual'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간접화행만이 항상 일차적이고 실제적인 화행이냐 하는 점과 또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의 구분이 항상 기계적으로 구분될 정도로 인간의 대화가 정적(static)인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음의 고전적인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17) A :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B : I have to prepare for an exam.(but let's go to the movies anyhow.)

위에서 A의 제안에대한 B의 응답은 '거절'(refusal)이라는 간접화행을 갖는다. 이는 비문자적 의미이지만 문자적 의미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B가 팔호안의 내용을 추가해서 발화한다면 이전에 가졌던 거절이라는 화행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아니 오히려 거절이라는 간접화행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는 단순히 '진술'(statement)이라는 문자적 의미의 직접화행만을 갖게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 이 직접화행은 부수적(incidental)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actual)이며 이차적이 아닌 일차적인 화행인 것이다. 따라서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대화를 전제로할때 Searle이나 Lyons의 기계적 분류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문자적 직접화행이 매우 단순한 데 비해 비문자적 간접화행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의 표적이 되어왔고 연구도 활발함은 부인할 수 없다. 사실 어떤 발화문이 직접화행만을 갖느냐 아니면 간접화행을 추가로 갖느냐 하는 것은 대화 상황에 달려있다. 예를들어 "Can you reach the salt?"가 정형외과 의사가 팔을 다친 환자에게 하는 발화라면 '질문'(question)이라는 직접화행으로 쓰인 것이며 이때의 직접화행은 일차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발화문이 식탁에서 쓰인 것이라면 소금좀 달라는 '요구'(request)라는 간접화행으로 쓰인 것이며 이때는 이 간접화행이 일차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이때 만일 간접화행이 아닌 직접화행으로 받아들이고 "Yes, I can." 정도로 응답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때는 '질문'이라는 직접화행은 이차적이고 부수적인 화행일 뿐이다. 이상의 간단한 예에서 분명해졌듯이 직접화행이냐 간접화행이냐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정해지면서도 어느 것이 일차적이고 실제적이냐 하는 것은 대화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간접화행에 대한 이론의 중요성은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과연 어느 상황에서 화자가 간접화행을 사용하며 청자는 화자의 의도한대로 그 간접화행을 이해하는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간접화행의 관용화(convention) 현상이다. 원래 간접화행은 적절한 상황과 대화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일정한 표현 형식이 일정한 간접화행으로 주로 쓰여옴으로서 하나의 정형으로 굳어진 것을 관용어법(convention)이라 한다.

(18) a. Can you pass the salt (please)?

b. Are you able to pass the salt?

위의 (18b)는 (18a)의 'can' 대신에 'be able to'를 사용한 것으로서 (18a)가 흔히 갖는 '요

구'라는 화행을 갖지 않는다. 또한 (18a)도 'please'라는 어휘를 덧붙임으로서 '요구'라는 화행만을 갖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이 경우의 '요구'라는 화행은 비문자적 의미에서 거의 문자적의미로 변하게 된다는 점인데 이것이 바로 관용어법의 특징이다.

(19) a. I want you to do it.

b. I desire you to do it.

'want'가 쓰인 (19a)는 '요구'라는 간접화행을 가질 수 있으나 'desire'가 쓰인 (19b)는 동일한 간접화행을 갖지 않는다. (19a)도 관용어법의 하나이다. 또한 실제로 어떤 발화가 직접화행으로 쓰이는 경우와 간접화행으로 쓰이는 경우는 억양이 다르다는 점도 관용화의 하나라고 하겠다.

화자의 입장에서 간접화행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saying indirectly)으로서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암시적으로 말하는 것(implicating)이라 할 수 있다. 이 암시적인 간접표현은 Grice(1975)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간접화행은 언어의 행위적 측면만을 본 것이지만 간접표현법은 화행을 포함한 발화의 의미 전부를 포함한 것이라는 점이다. 간접화행도 분명히 의미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Grice(1975)는 이러한 간접적인 대화암시를 conversational implicature라고 부르면서 암시란 말해진 내용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말해진 내용의 표현 방법에 의해서 전달된다고 말한다.⁸⁾(the implicature is not carried by what is said, but only by the saying of what is said, or by 'putting it that way') 이와같이 간접 표현 방식에 의해서 성공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화 참여자가 준수해야할 원칙이 바로 협동원칙(cooperative principle)이며 이 원칙이 구체화된 것이 양(quantity), 질(quality), 관계(relation), 양식(manner)의 네가지 격률(maxim)이다. Grice(1975)의 많은 부분은 청자가 암시적 대화를 듣고 어떻게 화자의 의도를 알아내는가 하는 추론전략(inferential strategy)적 측면의 구체화에 할애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러한 암시(implicature)도 언어 형식에 굳어진 의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며 이를 관용적암시(conventional implicature)라고 불러 일반적인 대화암시(conversational implicature)와 구별하였다. 이는 간접화행의 관용어법(convention)의 이치와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첫째, 간접화행은 비문자적 의미이며 구체적인 의미는 대화원칙에 의해서 결정되고 둘째, 간접화행은 암시적 의미의 하나이며 대화의 협동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Searle(1975 : 75-76)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지만 국내의 몇몇 논문에서 Austin의 illocutionary act, Searle의 indirect speech act, Grice의 conversational implicature가 각각 독립적으로 소개 및 논의되고 있지만 상호간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이제 간접화행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하여 국어 부정의문문의 화행을 살펴보겠는데 이에 앞서 영어의 부정의문문의 의미에 대한 Hudson(1975)의 입장을 일별하기로 하자.

8) 우리는 'implicature'가 '함축'이라고 번역되어 쓰이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여기서 굳이 '암시'라 번역한 것은 '함축'이 부정 중심적인 용어이며 '함의'(entailment)와 혼동하기 쉬운데비해, '암시'는 화자중심적이며 'imply', 'implicate'의 의미와 더욱 상응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Hudson(1975 : 8-9)은 다음 두 문장의 이미의 유사성에 대해서 주목할만한 언급을 하고 있다.

- (20) a. Isn't that a pretty dress?
- b. What a pretty dress that is!

그는 (20a)가 (20b)의 의미로 쓰일때 (20a)를 exclamation으로 분석하였음을 앞장에서 우리는 지적한 바 있다. 이 '감탄'이라는 의미는 (20b)의 문자적 의미이면서도 (20a)의 비문자적 의미이기도 한데 이러한 공통적 의미를 갖는 배경을 Hudson은 성실조건(sincerity condition)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 성실조건을 화용론의 영역이 아닌 의미론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exclamation으로 쓰이는 부정의문문은 고유한 통사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하나의 관용어법(convention)으로 굳어져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Hudson(1975 : 12)에서 성실조건이란 화자가 어떤 명제의 진위 여부를 청자도 자기가 아는 바대로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보고 있음은 결국 부정의문문이 '감탄'이라는 화행을 갖기 위해서는 화용론적 조건이 충족되어야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어의 부정의문문이 의미를 화행의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사용했던 두 문장을 다시 불러오기로 하자.

- (1) 영화는 갔지 않니?
- (2) 영화는 가지 않았니?

(1)은 이미 앞장에서 여러차례 강조했듯이 시제표지가 '지' 앞에 나타난 표현으로서 영화는 갔음을 화자가 진술하는 '진술'(statement) 혹은 좀 더 강한 '감탄'(exclamation)의 화행을 갖는다. 이 (1)은 이미 부정의 의미를 상실한 관용어법(convention)이 된 것이다. 이에 비해 (2)는 그 문자적 의미의 직접화행은 '질문'(question)이지만 적절한 화용론적 상황하에서는 '진술'이나 '감탄' 등의 비문자적 의미의 간접화행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두 화행은 일례에 불과한 것이며 그밖에 수없이 많은 화행으로 쓰일 잠재력(potential)을 가지고 있다.⁹⁾ 또한 여기서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은 (2)가 이런 다양한 화행을 갖는 경우는 이차전제용법으로 쓰일때라는 점이다. (2)가 비전제용법이나 일차전제용법으로 쓰일때의 화행의 범위는 지극히 좁아져서 거의 '질문'이라는 직접화행만으로 쓰이는 것과 비교해볼때 국어의 부정의문문의 이차전제용법이 국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그만큼 이차전제용법에 대한 언어학적 규명의 필요성도 지대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여기서 다시 돌아가보면 김동식(1981)의 '확인문' 논리나 장석진(1984)의 부가의문문 이론은 우리의 이차전제용법이 갖는 화행중에서 '진술'이라는 화행이 부가되어 이론화된 것이라는 점을 이제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 이론들은 국어 부정의문문의 일부분으로 설명되어야 할 현상을 독립된 전체로 간주함으로써 오히려 부분적인 설명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1)을 부정의문문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화자가 '영화는

9) 한가지 예를 들면 영화는 갔는데 너는 왜 안 갔느냐는 '비난'의 화행을 가질 수도 있고 영화는 갔으니 너도 가라는 '명령'의 화행을 가질 수도 있다.

갔다'라고 서술문의 형식으로 발화하는 경우에는 '영회는 갔지 않니?'라는 의문문의 형식으로 발화하는 경우보다 '진술'이라는 화행의 강도는 높아진다. 다시말해서 화자가 의문문의 형식을 빌리는 동기는 스스로 '진술'이라는 화행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직접화행이 아닌 간접화행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식탁에서 '소금 좀 달라'라고 말하는 대신에 '소금 좀 줄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때 우리의 이차전제용법의 문장은 의문문의 관점에서 보면 서술성이 강한 화행이 되지만 서술문의 관점에서 보면 서술성이 약화되는 간접화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이차전제용법의 활용도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화자가 직접화행 대신에 간접화행의 어법을 사용하는 동기는 무엇일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Searle(1975 : 74)은 간접형식을 사용하는 중요한 동기는 바로 예의(politeness)라고 주장하면서 예를 들어 'Pass me the salt.' 대신에 'Can you pass me the salt?'를 쓰면 화자가 청자의 실행 능력을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고 또 청자에게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면에서 더 예의를 갖춘 어법이라고 본다. 이점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며 여기에는 화행의 차원뿐만 아니라 대화의 암시적 화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국어의 부정의문문의 이차전제용법은 여러가지 간접화행의 잠재력을 가진 화용론적 특성이 강한 어법임을 논증하였다.

4. 마무리말

어린이들의 말을 살펴보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 사이사이에 '있지 않아'라는 표현을 넣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표현이야말로 원래의 부정의문문의 기능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더구나 진술이라는 간접화행의 의미조차 갖지 않는 idiom, 즉 상투적 표현으로 굳어진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 상투적 표현이 되기 전단계가 바로 관용어(convention)인데 국어 부정의문문의 이차전제용법 가운데 시제표지가 '지' 앞에 오는 전용적 이차전제용법을 바로 이 관용어법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2장에서 보았듯이 영어에서도 이차전제용법의 'not'은 의미도 사라지고 형태도 'n't'로 축약되어 발음도 [nat]가 [nt]로 약화되는 관용화의 과정을 겪어왔으며 우리말의 부정소 '아니'는 물론 의미는 잃었지만 자체의 형태의 변화는 없다. 그 대신에 장형부정의문문의 경우에 '지' 앞에 오는 서술어간 다음에 시제표지 '았'이 실현되고 원래의 자리인 '아니 하-' 다음에는 명시적 시제표지가 나타나지 않는 통사상의 변화가 있는데 이때는 전적으로 이차전제용법으로만 쓰이므로 우리는 전용적 이차전제용법이라 불렀다. 그러면 이러한 관용화의 근본 동기는 무엇일까? 매우 궁금한 문제이다. 우리는 아직 그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토박이의 직관과 인식본의 관점에서 이렇게 추측해 본다. 하나는 우리가 대화중에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려고 할때 자기의 의도와 반대되는 부정적 표현이 튀어나오는 경험을 가끔씩 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강한 긍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욕구가 청자의 부정적 이해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쪽으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울러 시제표지가 '지' 앞에 오는 동기는 '지' 앞의 본술어(main predicate)에 시제를 표시함으로써 그 긍정 술어를 기정사실화하여 '아니' 이하의 부정적 의미를 무력화하려는 심리적 동기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러한 추측은

매우 막연한 것이며 신비스런 언어 현상에 대한 외경심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끝으로 그러면 이처럼 다양한 화행이 왜 하필이면 (부정)의문문의 형식을 빌어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자. 의문문은 적어도 화자와 청자라는 두 사람을 필요로 하는 매우 대화성 (conversationality)이 높은 발화문이다. 심지어 자문자답의 형식일지라도 또하나의 자기에게 묻고 답하는 대화성이 의문문에는 있다. 또 간접화행도 지극히 대화성이 높아서 대화의 전제없이 화행 자체의 논의조차 무의미하다. 간접화행은 대화 참여자간의 협동의 원리 (cooperative principle)가 준수되지 않으면 대화의 진전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화성이 아주 강한 두 어법의 만남은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놀랄만한 조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은 부정의문문의 화용론적 특성에 대한 본 논증이 국어가 화용론적 언어임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의미있는 증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동식(1981) '부정아닌부정', 언어6.2, 한국언어학회.
 박주현(1983) '화행이론에 대하여', 영어영문학29.2, 한국영어영문학회.
 장경기(1986) '국어의 부정의문문과 진제', 어학연구22.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장석진(1984) '국어의 부가의문', 언어9.2, 한국언어학회.
 Austin, J.L.(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Cattell, R.(1973) 'Negative Transportation and Tag Questions', *Language* 49.3.
 Grice, H.P.(1975) 'Logic and Conversation', *Syntax and Semantics* 3.
 Hudson, R.A.(1975) 'The Meaning of Questions', *Language* 51.1.
 Jespersoen, O.(193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George Allen & Unwin.
 Karttunen, L.(1973) 'Presupposition of Compound Sentences', *Linguistic Inquiry* 4.2.
 Lyons, J.C.(1977) *Semantics* 2. London.
 Searle, J.(1975) 'Indired Speech Acts', *Syntax and Semantics* 3.